

입력 2021/01/31 19:00

▶ 인쇄하기

한인타운 공공안전 강화 간담회

한인사회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온라인 간담회가 열렸다.

케이시 스트래티지스(KACIE·대표 신디 신)는 지난 28일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한인 법집행기관 종사자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LA한인타운 치안상황 및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LA한인타운 등 LA 도심은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가 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인구밀집도가 높은 LA한인타운은 차량 내 귀중품 절도, 폭력시비, 길거리 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한인사회 치안악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공공안전을 위해서는 한인 등 커뮤니티가 각종 문제점에 관한 의견교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종 사건·사고를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커뮤니티 차원에서 공론화한 뒤, 올림픽 경찰서 등 LA경찰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한인타운 공공안전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LA총영사관 이용욱 경찰영사, 브랜든 이 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경찰국 경관, 에드 김 어바인 경찰국 서전트, 케이 윈 애리조나주 자문위원, 알렉산더 김 쓰리킹스퍼플릭어페어 CEO, 벤 박 한인경찰공무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 간담회는 유튜브(youtu.be/i6oUPa_D7JY)로 다시 볼 수 있다.